유아용 친환경 식습관 교육 교재 ④ _ 꼬로록별에서 온 영양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010년 〈아람이의 비밀〉을 발간한 이래 2011년 〈만들기 대장 새미와 쌀개비〉, 2012년 〈벌레먹은 상추가 최고야〉를 발간하며 영유아를 위한 친환경식습관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2013년에는 동화의 작품성과 대중성을 높이기 위해 실력 있는 동화작가들을 대상으로 1회 공모전을 실시하여 〈꼬로록별에서 온 영양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글을 쓴 이 붕 선생님은

농촌에서 태어나 동화책을 너무 좋아했기에, 동화작가가 되었어요.
(사)어린이문화진흥회의 〈생각이 저요, 저요!〉 편집장으로 일했어요. 제4회 대교눈높이문학상, 제1회 한우리청소년문학상, 17회 한국아동문학상을 받았어요.
〈아빠를 닮고 싶은 날〉, 〈물꼬 할머니의 물사랑〉, 〈5학년 10반은 달라요〉, 〈그래서 행복해〉, 〈비틀거리는 아빠〉, 〈우리 엄마는 걱정대장〉 등 많은 동화집과 유치원 어린이를 위한 〈열두 달 이야기 유치원 1, 2〉와 〈바른 생각 키워주는 생각동화〉, 〈알록달록 물감바지〉 등 많은 그림책이 있답니다.

그림을 그린 서유진 선생님은

경기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어요. 그림책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린 책으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해〉, 〈굴참나무와 오색딱따구리〉, 〈곤충마을 장기대회〉, 〈목련꽃 할머니〉, 〈내 사랑 빠꾸기〉, 〈아기기러기의 여행〉 〈방글 아주머니의 별빵〉, 〈작은 동물원〉 등이 있어요.

- **초판 1쇄 펴낸날** _ 2013년 10월 31일
- **기획** _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소비문화팀 이선호 과장(031-460-8897)
- **발행** _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편집디자인** _ 삼십칠도커뮤니케이션(www.37com.co.kr)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 유아용 친환경 식습관 교육교재는 친환경 농산물 위주의 식단과 음식 섭취를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동화 시리즈입니다.

유아용 친환경 식습관 교육 교재 4

꼬로록 별에서 온 영양사

글 _ 이 붕 그림 _ 서유진

뭉게구름 속에 **작은 별**이 있었어요.

그 별에서는 늘 소리가 났어요.

꼬로록, 꼬르륵, **꾸르륵,** 끄르륵.....

배고파서 나는 소리였지요.

그래서 이름이 **꼬로록별**이에요.

꼬로록별 여왕은 지구별이 몹시 부러웠어요.
채소들은 파릇파릇, 과일은 주렁주렁,
알알이 맺은 곡식이 풍성하니까요.

"지구를 빼앗을 방법이 없을까?
우리 꼬로록별은 오래 버티지 못할 텐데."
하지만 지구를 **공격할 힘**이 없었답니다.

생각에 빠져있던 여왕이 무릎을 탁 쳤어요.
"나라의 기둥인 **어린이를 약골**로 만들어버리자.
그런 다음 쳐들어가는 거야. 히히히....."
흥얼흥얼 노래까지 불렀어요.

깨지락깨지락 비실비실, 콜록콜록 말라깽이.
뒤룩뒤룩 뚱보들, 기운 빠져 어기적어기적,
아토피로 벅벅, 버억~벅. **약골, 약골 만세!**

여왕은 곧 왕자와 공주를 불렀어요.

"너희 둘, 지구별에 다녀오너라.

'지구 어린이 허약하게 만들기' 작전이다."

"멀어서 가기 **싫어요.**"

"**귀찮아요.**"

"어려워서 **못해요.**"

신하들이 수군수군 걱정했어요.
"후계자가 저 모양이니, **희망이 없구려**."

"그러니까 요리조리남매지요."
요리조리는 공주와 왕자의 별명이에요.
뭐든 요리조리 피해서 그리 불렸지요.

여왕은 공주와 왕자를

지구로 확 떠밀었어요.

마지막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요리 슈웅, 조리 피웅!

요리와 조리는 지구를 향해 곤두박질쳤어요.

"으, 으악!"

정신을 차려보니 **어린이집**이었어요.
두 사람을 발견한 원장님이 물었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나아~는 $@&.”**
“나아~는 &^%*%”

하지만 꼬로록별 이름은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할 수 없이 듣기 쉬운 별명을 댔어요.

"저는 **요리공주**, 얘는 **조리왕자**에요."

그러자 원장님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 새로 온 **영양사**와 **보조사**구나."

이렇게 두 사람은 요리사와 조리사가 되었어요.

'야호, 침투 성공!'

'휴,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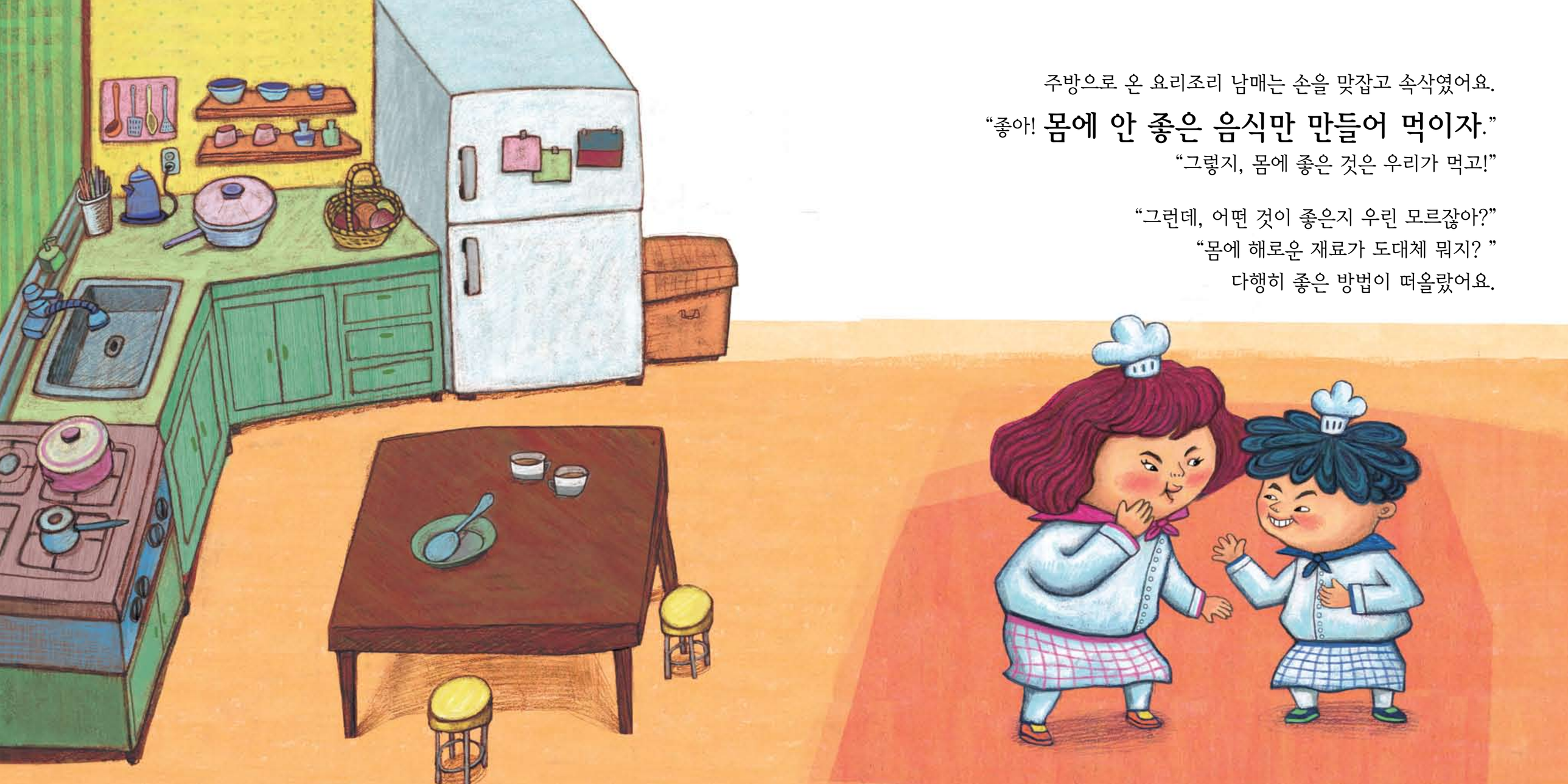
요리조리남매가 어린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니**?"

어린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요!"

"몸에 해로운 것이 안 들어간 음식이요!"



주방으로 온 요리조리 남매는 손을 맞잡고 속삭였어요.

"좋아! **몸에 안 좋은 음식만 만들어 먹이자.**"

"그렇지, 몸에 좋은 것은 우리가 먹고!"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린 모르잖아?"

"몸에 해로운 재료가 도대체 뭐지? "

다행히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요리조리 남매는 마트로 갔어요.

"너희들, 차례차례 자기소개를 해 봐."

그러자 식료품들이 저마다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현미
쌀
"오리가 우리 친구였어."
"척보면 알 거야.
난, 퇴비만
먹고 자랐거든."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잡아준 덕분에
난 행복하게 자랐지."
"우린 오래도록
묵힌 발효식품이란다."
된장

요리조리 남매는 식료품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요리조리 남매는 날마다 흥얼거리며 음식을 만들었어요.

"히히히, **어린이들**에게 먹일 음식은 **나쁜 재료**로."

"간편한 인스턴트와 잘 생긴 식품으로는

우리 먹을 것을 만드는 거야. **룰룰루~**"

요리조리 남매는 걱정이 되긴 했어요.

"나쁜 재료만 쓰는 것을 들키면, 여기서 쫓겨나겠지?"

"그러니까 조심하자."

이때, 원장님이 다가와 말했어요.

"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주어 **정말 고맙구나!** ."

원장님이 나간 후, 요리와 조리는 킥킥 웃었어요.

"원장님 바보다, 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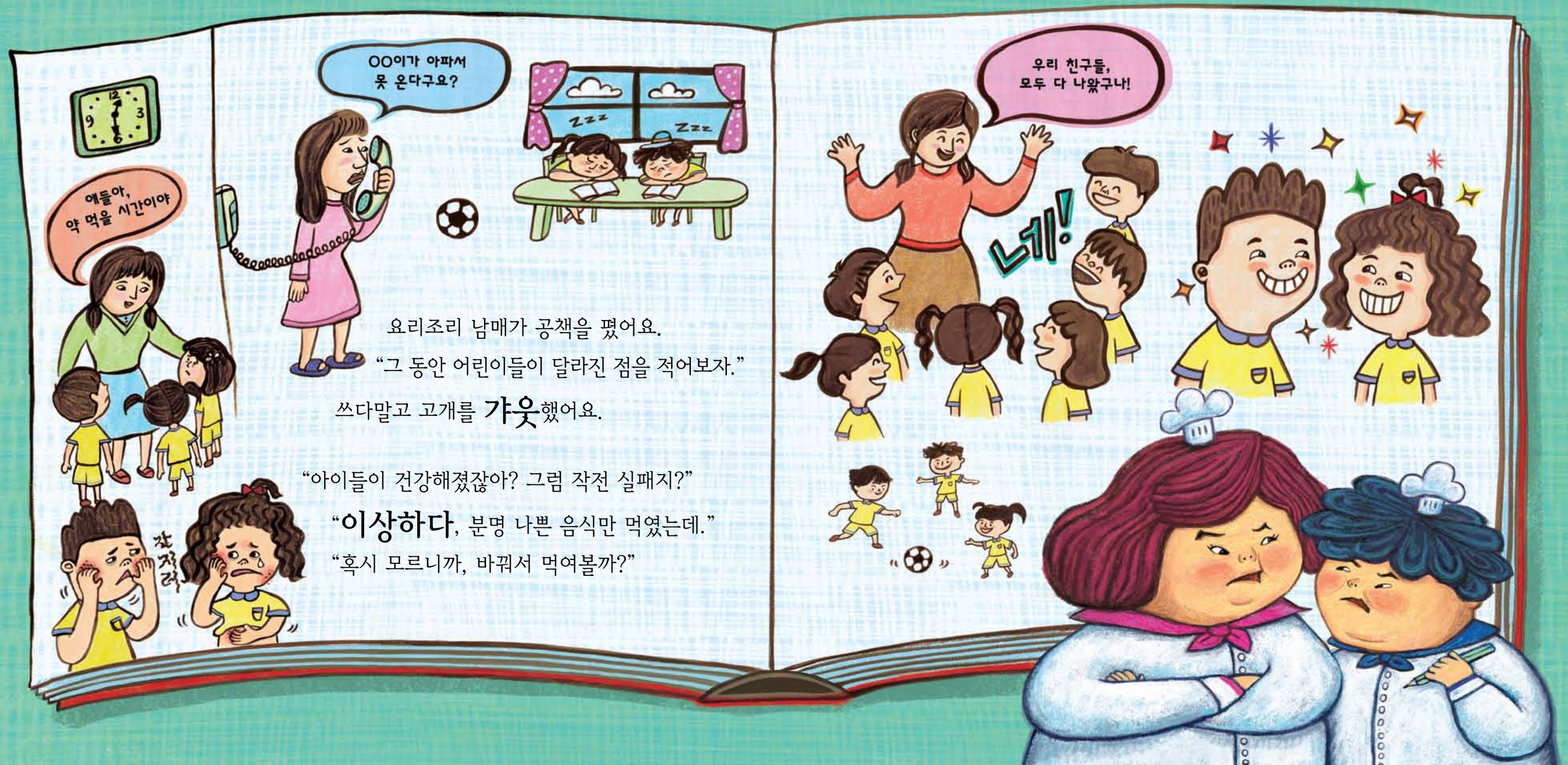
"우릴 칭찬하다니, **아무 것도 몰라**. 히히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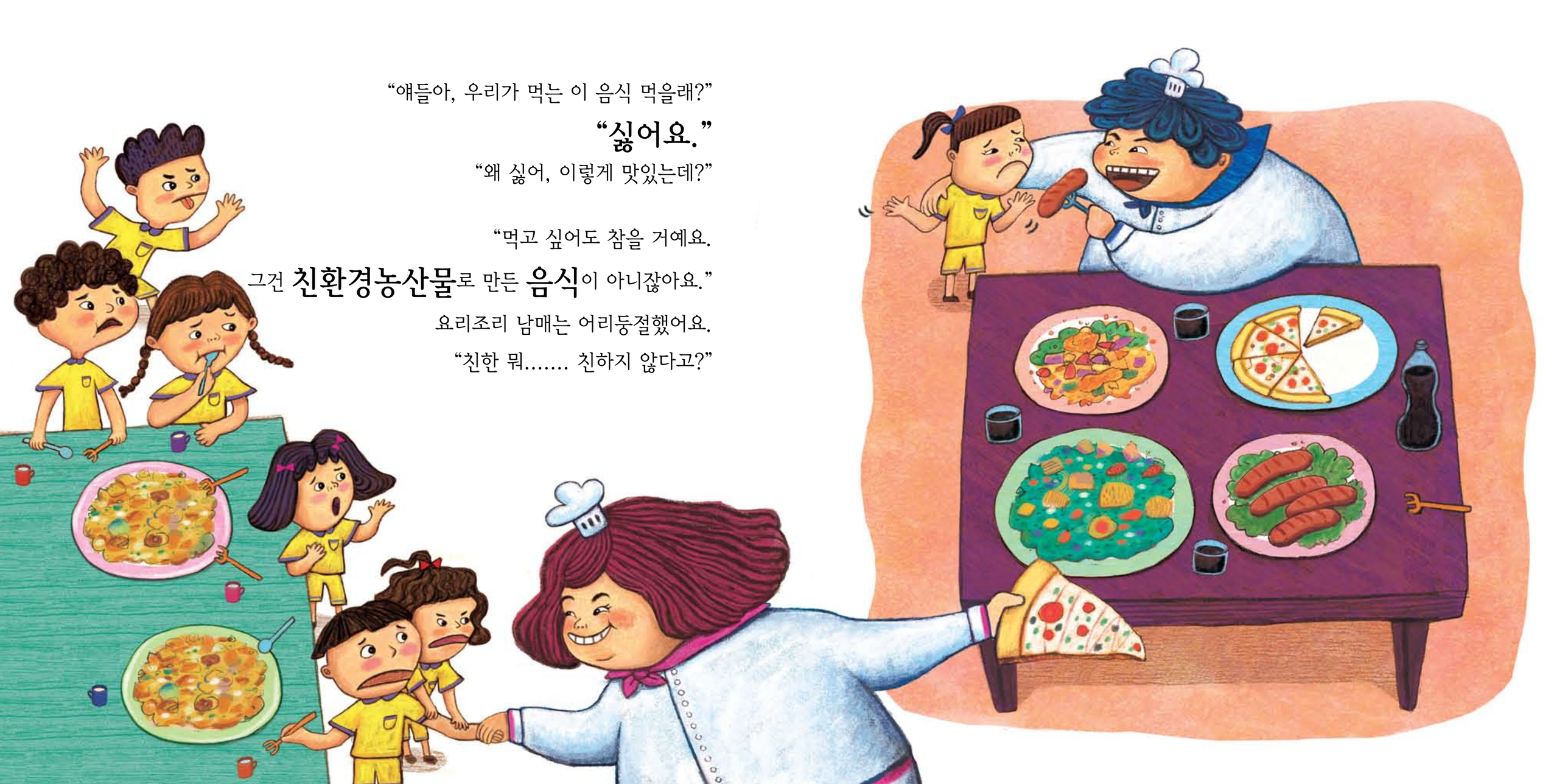
요리조리 남매는 신이 났어요.

"작전 성공! 나 좀 봐, **살 많이 쪘지**?"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뒤룩뒤룩한 배를 만지며 좋아했어요.


애들아,
약 먹을 시간이야
갑자기
OO이가 아파서
못 온다구요?
Zzz
Zzz
요리조리 남매가 공책을 폈어요.
"그 동안 어린이들이 달라진 점을 적어보자."
쓰다말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이들이 건강해졌잖아? 그럼 작전 실패지?"
"이상하다, 분명 나쁜 음식만 먹였는데."
"혹시 모르니까, 바꿔서 먹여볼까?"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나왔구나!
네!



"얘들아, 우리가 먹는 이 음식 먹을래?"

"싫어요."

"왜 싫어, 이렇게 맛있는데?"

"먹고 싶어도 참을 거예요.

그건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음식**이 아니잖아요."

요리조리 남매는 어리둥절했어요.

"친한 뭐..... 친하지 않다고?"

이때, 꼬로록별 여왕이
지구를 내려다보았어요.
"**작전이 성공**하고 있겠지."

어린이집을 살피던 여왕은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들이 더 건강해졌잖아? 저런 멍청이들....."
화가 난 여왕은 팔짝팔짝 뛰며 명령했어요.
"**작전 실패**. 두레박을 보내니, 일단 후퇴하라!"

그런데 요리조리 남매는 두레박을 탈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안 벌어져. 펄쩍 뛸 수도 없어.”

“살은 쪘는데, 왜 이리 기운이 없지?”

끙끙대다 겨우 두레박을 탔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줄이 툭 끊어**졌답니다.

요리조리 남매가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이에요.

꼬로록.....

며칠 후, 꼬로록별은 우주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요리조리 남매는 소곤소곤 의논했어요.

"우리별이 사라졌으니, **그냥 여기서 살까?"**

"그래. 우리도 친환경음식 먹고 건강해지자."

그래서 요리와 조리는

진짜 영양사가 되었답니다.